

# GS계열사, 상생협력의 뜻을 펼치다

GS칼텍스 · GS건설 등 9개 계열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식' 시행

좋은 일을 함께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이 상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더욱 나아진 기업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GS칼텍스를 비롯한 GS 9개 계열사와 1,000여 개의 협력회사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GS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식'을 실시했다. 협력회사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 찾기에 팔을 걷어 부친 GS계열사의 상생협력을 소개한다.

정리\_ 편집부 | 자료제공\_ GS칼텍스

지금까지 GS는 협력회사 간담회 및 정보교류 활동을 통하여 협력회사의 다양한 요구를 회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특히, GS칼텍스는 1967년 창립 이래 현금결제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GS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식에서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지금까지 GS와 협력회사가 구축해온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GS칼텍스는 이번 협약식을 맞아 상생펀드에 200억 원을 출연하여 협력회사의 은행대출 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론을 도입하여 우수 협력회사에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한다.

또한 협력회사에 대한 현금 결제를 10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 등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협력회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시험장비 무상 제공을 통해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 분야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2007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협력사들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경영혁신활동 및 공동 연구개발, 기술 지원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관계에 앞장서고 있다.

GS건설은 통합공사관리시스템인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전 협력회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멘토링 제도, 협력회사 사장단 간담회인 '자이 CEO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